



SRI LANKA · MALAWI · KOREA

후원이 닿는 곳마다 희망이 자랍니다

후원자님의 정성으로 스리랑카의 교실과 말라위의 들녘에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두 나라에서 이어진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 호 목차

IN THIS ISSUE

1

스리랑카 도서관 방과후학교

방과후 영어교실과 현장의 목소리(교사·학부모)

2

화분나누기 사업

동행하는교회와 함께한 부활절 화분나누기

3

말라위 양계사업 & 인턴 출장후기

여성가장 자립 현지조사 · 인턴 신하원의 말라위

3개교

스리랑카 방과후

1,000개

화분나누기

신규

말라위 양계사업

이번 호 한눈에

스리랑카 3개 학교 방과후 영어교실, 동행하는교회와 함께한 화분나누기, 말라위 여성가장 양계사업 현지조사까지 — 후원이 만든 변화를 전합니다.

1. 스리랑카 / 도서관 방과후학교

방과후 영어교실, 도서관에서 피어나는 미래

더램프가 2024-2025년 학교에 세운 도서관이 이제 배움의 공간으로 깨어났습니다. GCF와 후원자님의 기부, 그리고 물라이티브 YMCA와의 협력으로 케파필로부·바타팔라이·콜라무리푸 3개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라이티브군은 내전과 재난의 상처가 깊은 스리랑카 최빈곤 지역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모국어로 공부해 영어를 따로 배워야 합니다. 영어 능력은 진학과 취업의 기회를 넓히는 열쇠입니다.

YMCA와 학교장의 추천·선발을 거쳐 학교당 취약계층 학생 25명을 선발해, 매주 2회·각 2시간 영어 수업과 영양식을 제공합니다. 현재 영어 이야기책 두 번째 권을 함께 읽으며, 방과 후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의 학업과 영양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3개교

방과후 영어교실

케파필로부·바타팔라이·콜라무리푸

25명

학교당 선발

취약계층 학생

주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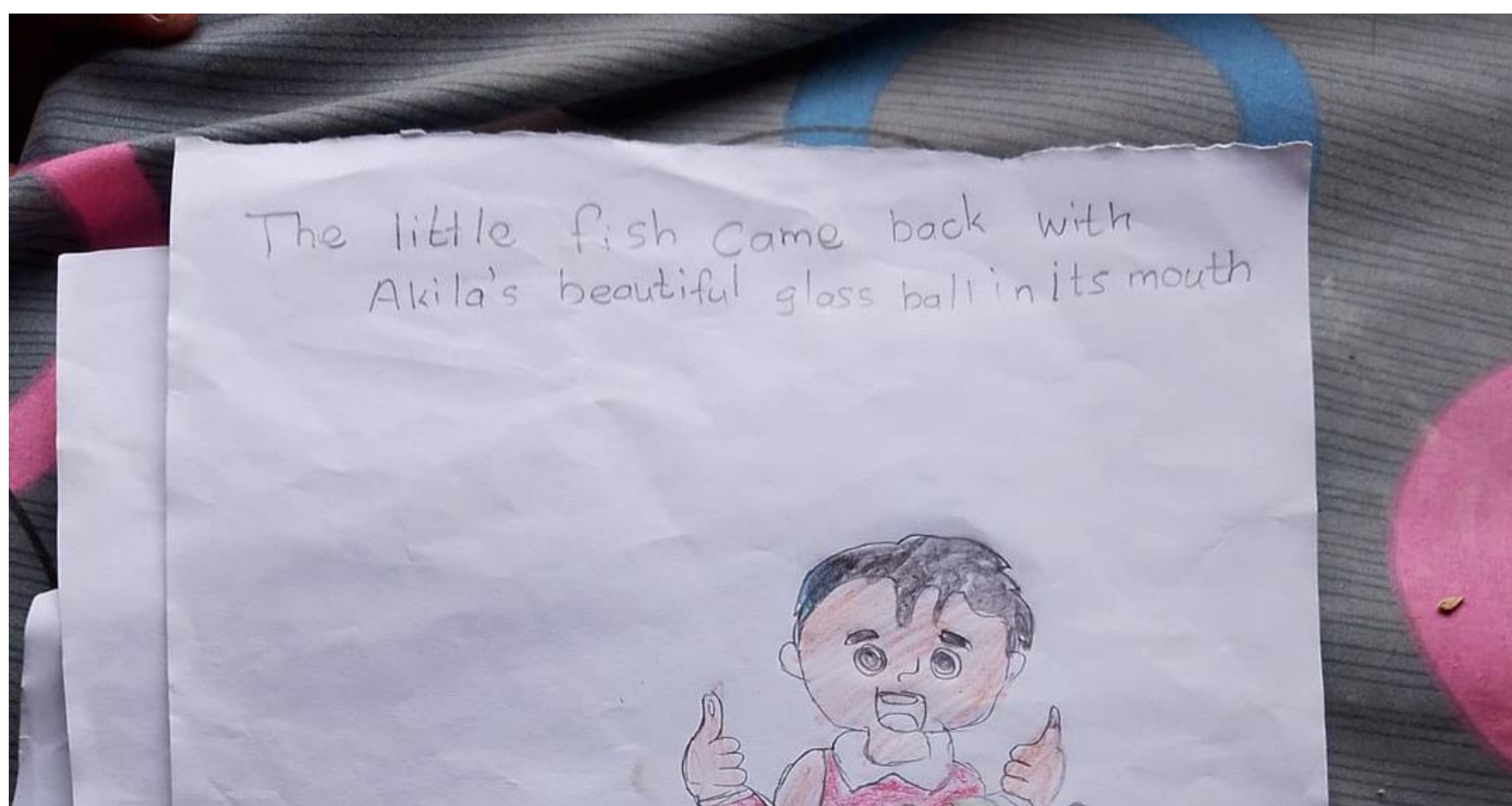
방과후 수업

회당 2시간 · 영양식

2권째

영어 이야기책

읽기·말하기 학습



▲ 아이가 직접 쓰고 그린 영어 이야기책 — “The little fish began to dance.”



▲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함께 영양식을 나눕니다

현장의 목소리 · FIELD VOICE

교사

“스토리텔링 수업을 시작한 뒤로 아이들의 어휘와 표현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책 속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발음하며 이야기를 멋지게 풀어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지는 수업에도 서로 협력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케파필로부 학교 방과후학교 교사

학부모

“원래 우리 학교에는 영어수업이 없어서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더램프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로 아이들이 큰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에 와서도 배운 활동을 열심히 따라 합니다. 이 배움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비토살리 · 바타팔라이 학교 학부모

2. 화분나누기 사업 / 동행하는교회

봄을 선물합니다 — 부활절 화분나누기

4월 5일 부활절·식목일을 맞아, 용인 수지 동행하는교회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화분나누기'를 열었습니다. 교회가 화분을 이웃과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일상에 지친 이웃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생명사랑의 가치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작은 화분 하나에 봄의 생명력과 더 램프의 따뜻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1,000개
나눔 화분
지역주민에게 전달

5종
허브 화분
로즈마리·민트·레몬밤 등

4.5
부활절·식목일
동행하는교회 정문앞

1년+
발효 분갈이토
더램프 제공 최고급 흙



▲ “봄을, 선물합니다 — 부활절, 지역주민 꽃화분 무료 나눔” (동행하는교회)

▲ 벚꽃 아래, 교인과 주민이 함께한 화분나누기 현장



화분 하나에 담은 마음

로즈마리·애플민트·페퍼민트·레몬밤·스위트바질 등 1,000개의 화분을, 더램프가 제공한 1년 이상 발효된 최고급 분갈이 흙으로 교인들이 직접 분갈이해 주민에게 나눴습니다. 더램프는 생명농업의 일환으로 후원교회·지역교회와 함께 화분나누기를 이어갑니다. 관심 있는 교회의 문의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관련 보도 · 한국기독교공보, 노컷뉴스

3. 말라위 / 양계사업 현지조사

NEW

말라위 여성가장의 자립을 위한 첫걸음

더램프는 후원자님의 응원에 힘입어 사업의 지평을 말라위로 넓혔습니다. 5월 19-30일, 자연양계 훈련으로 이름난 보나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여성가장을 위한 양계사업을 기획하고 현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새로 설립된 NGO인 CGF(Common Ground Foundation)가 동행했고, 더램프는 보나영농조합과 함께 코이카(KOICA)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릴롱게군 카부둘라면·농업부 공무원과 릴롱게 농업대학(LUANAR)을 만났습니다. 정부는 양계사업이 여성가장의 생계를 돕고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환영·지지했고, 대학은 양계 훈련·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3배·사료값 1.5배 급등으로 어려운 말라위에서, 양계는 여성가장이 자녀를 돌보며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터가 됩니다.

12일

현지조사

5.19-30

정부·대학

협력·지지 확보

농업부·LUANAR

여성가장

자립 일터

양육·가사 병행

KOICA

공모 추진

보나영농조합·CGF



▲ 현지 양계장(닭사) 시설을 살펴보는 조사팀



▲ 병아리·사료 가격 등 현지 시장조사

인턴 소개 / 말라위 출장후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닮아 있구나”



▲ 말라위 현장의 인턴 신하원

The Lamp에 함께한 지 어느덧 4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번 말라위 출장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현지 시장을 방문해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닮아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생활방식은 달랐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다르지 않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현지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곳을 다니며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더램프 인턴 신하원

당신의 후원이 만든 변화

후원자님 덕분에 스리랑카의 교실에서, 말라위의 들녘에서, 그리고 우리 동네 골목에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성이 두 나라의 내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램프와 함께 길을 걸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말라위 릴롱웨에서 — 더램프 현지조사팀과 협력 파트너들

더램프 후원 안내

1. 개인·기관 후원 매월 약정금액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 후원 ① 도서관·방과후학교 ② 친환경 생명농업
③ 안전한 식수시설 ④ 말라위 양계사업
3. 기부금영수증 발행해 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358801-04-143445 (사단법인 더램프)

후원링크 ihappynanum.com/Nanum/B/S7YKR6DJD2

홈페이지 thelamp.kr · 전화 070-8803-4587 · 이메일 thelampkr@gmail.com



QR 후원링크

함께하는 분들

대표 이영철 · 고문 이시영 · 기술고문 고병수 · 이사 구자범 김달호 박준범 성낙송 안태주 양성부
유명호 이형우 임기도 조영훈 최도식

함께하는 단체

GCF · JBN보험중개 · 고능교회 · 뉴라이프교회 · 다일교회 · 동행하는교회 · 삼송동안교회 · 서교동교회
· 서부교회 · 소마교회 · 수진교회 · 신철원중앙교회 · 안동교회 · 엘림열방선교회 · 엠에스전기(주) · 유니
락(주) · 의정부뉴시티교회 · 주은혜교회 · 주작나무한의원 · 진리와은혜교회 · 코코호도 · 한일교회